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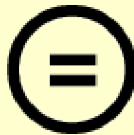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중고령층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유 중 용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전주상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중고령층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Voluntary Activities

-Focused on the mid-aged old volunteers in Seoul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유 종 용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전주상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중고령층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Voluntary Activities

-Focused on the mid-aged old volunteers in Seoul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 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유 종 용

유종용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친 영향 -서울시 중고령층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유 중 용

최근의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 자원봉사활동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 고립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정부와 같은 전통적인 조직만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과거 인간애를 기본으로 한 무조건 주는 태도 또는 베푸는 행동으로서의 의의가 컸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선 또는 구호중심의 전통적 자원봉사 대신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한 대안들 중 하나로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령층에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자본(신뢰, 네트

워크, 호혜성)이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특성인 자발성, 이타성, 자기만족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고령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친지나 지역사회 이웃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평생 축적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한 전문분야별 중단기적 목표를 제시하는 다양한 전문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홍보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고령층 노인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사회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여 자아실현을 도움을 준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세대 간 문화적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호혜성의 측면에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즉, 중고령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약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는 세대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를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회에 책임을 지는 세대로서의 사회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진행될 때에 사회구성원의 한축으로서 중고령층의 자연스러운 사회참여와 활발한 자원 봉사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셋째,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불신과 대립의 풍조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만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사회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 중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자원봉사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자원봉사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민간 자원봉사기관이 연합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 나가

야 할 뿐 아니라, 양질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고령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도 보다 풍요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으나, 본 연구는 서울시 지역 내 55세 이상의 중고령층 자원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중고령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현대화 주역으로서 그동안 배양하고 축적하여 형성한 사회자본의 정도를 가늠하는 연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형성된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여, 이를 통하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주요어】 사회자본, 자원봉사활동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사회자본이론	8
1. 사회자본의 개념	8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5
3. 사회자본의 형성과 기능	22
4. 사회자본의 측정	30
제 2 절 자원봉사의 개념	42
1. 자원봉사의 개념과 기능	42
1) 자원봉사의 개념	42
2) 자원봉사의 기능	46
2. 중고령자의 정의	49
제 3 절 선행연구	51
1.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	51
제 3 장 연구 설계	56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56
1. 연구모형	56

2. 연구가설의 설정	57
제 2 절 설문지 구성	58
제 3 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59
제 4 절 통계분석방법	59
 제 4 장 연구 결과	 60
제 1 절 조사도구의 검증	60
제 2 절 통계분석 결과	61
1.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61
2. 자원봉사 참여 실태에 대한 분석	63
3.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64
4.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 석	65
5.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다중회귀분석)	72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	75
 제 5 장 결 론	 76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6
제 2 절 제 언	76
 【참고문헌】	 79
 【ABSTRACT】	 84

【 표 목 차 】

<표 2-1> 주요학자들의 사회자본의 정의	14
<표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6
<표 2-3> 박희봉 · 김명환(2001)의 지역사회참여 및 사회자본 측정 지표	32
<표 2-4> 소진광(2003)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33
<표 2-5> 정기환 외(2006)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34
<표 2-6> 홍영란(2007)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36
<표 2-7> SCCBS 사회적 자본 구성 요인 및 설문 내용	36
<표 2-8> World Bank 연구물의 사회적 자본 측정 구조	38
<표 2-9> 영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구조	40
<표 2-10>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41
<표 2-11> 중고령자의 정의	50
<표 3-1> 측정요인 및 측정지표	58
<표 4-1>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60
<표 4-2>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61
<표 4-3> 자원봉사 참여실태에 대한 분석	63
<표 4-4>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64
<표 4-5> 봉사시간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65
<표 4-6> 봉사기간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67
<표 4-7> 성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68
<표 4-8> 연령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69
<표 4-9> 학력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70

<표 4-10> 월수입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71
<표 4-11>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자발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72
<표 4-12>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73
<표 4-13>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자기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74
<표 4-14> 가설 검증.....	75



【 그림 목 차 】

<그림 2-1>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의 관계	22
<그림 2-2> 박희봉 · 김명환(2001)의 사회자본 분석틀	31
<그림 3-1> 연구 모형	5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각 개인은 고립되어 인간관계는 단절 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이로 인하여 인간성의 상실, 공동체 의식 파괴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의 한정된 재원과 자원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한계를 도출하였고, 전체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때에만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과거에는 특정사회계층의 유물로서 베푸는 사람의 온정적 시혜라는 인간애를 기본으로 하는 미시적 자원봉사활동이었으나, 현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성의 상실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해체에 대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고 가정 및 민주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적 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중 하나가 의학의 발달과 건강기술이 증진에 따라 발생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 초고속의 고령화 사회 현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를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황진수, 2011: 87)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201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0%,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하여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는 오는 2026년쯤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1: 8)

이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과 관련된 노인의 여가 활동문제, 소외와 고독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보호 문제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중 노인 여가활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장점은 노인 개인에게 퇴직으로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자칫하면 상실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어 아직도 자신이 사회에 유용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한다. 특히, 산업화를 이룬 세대로서 퇴직에 따라 그들이 그간 현직에서 쌓아온 지식, 기술, 경험 그리고 지혜와 같이 축적된 잠재능력을 동원하여 자아성장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싶은 욕구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의 적극 추진은 노년기의 중고령층들에게 정체성 확립 및 만족스런 노후의 삶을 영위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다.

일례로, 오늘날 서구 각국은 생산적인 노후를 강조하는 노인정책을 강조 함으로써 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정책변화의 주요 취지는 고령 인구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 하게 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체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있다. 이 같은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현대 노인정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노화 정책의 중요한 측면은 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노인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노인자원봉사 활동은 참여 노인에게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켜주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 및 생활만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세대간 응집력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자원봉사는 경제 및 복지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점이 적지 않다.(이현기, 2009: 318)

최근의 연구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특징으로 첫째,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둘째 국가와 시민단체들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셋째,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참여 동기유발과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의 활력이 높다는 것이다.(김태룡, 안희정, 2011: 14)

따라서, 선진화된 복지사회 일수록,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시민참여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일반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의 보편적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제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일반적 개념의 유형의 자본이 아닌 우호적 인간관계, 제도에 대한 신뢰, 준범의식 등의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후반 서구에서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프랑스의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로 알려진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자본이란 개념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즉 부르주아 계급은 경제자본의 축적만이 아니라 경제자본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지만 구체적 모습은 명확히 들어내지 않는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과 같은 은폐된 형태의 자본을 축적하여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미국의 사회학자 콜먼(James Samuel Coleman)은 사회자본은 일정한 사회구조의 측면과 사회적 구조에 속한 개인들이 일정한 행동양식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정의했다. 퍼트남(Robert Putman)은 협동적 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이라고 했다. 한편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사회자본은 그룹과 조직에서 공통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며,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한 집단의 회원들 사이에 공유된 일단의 비공식적인 가치 또는 규범 내지는 신뢰의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의 정의는 다양하다.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하면 사회자본의 핵심은 사회에 존재하는 상호간의 신뢰, 공통적인 비전과 시스템에 관한 믿음, 준법정신, 상호간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신뢰하는 문화가 모든 사회자본의 원천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희생적이고, 자발적이며 순수한 이타성에 대한 발현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무형의 정신적 자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이러한 무형의 정신적 자원 중에 한 유형으로서 사회자본이 연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무형의 정신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태룡, 안희정, 2011: 14). 즉,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으로 자원봉사자의 무형의 자산인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 고령층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의 요소들이 중, 고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인 이타성, 자발성, 자아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중,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보면,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어 왔으며(김태룡, 안희정, 2011: 145), 자원봉사활동이 중, 고령층의 사회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영옥, 2011: 3) 반면, 중, 고령층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

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성화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자원봉사활동의 지속 및 만족요인,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감 또는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고령층 자원봉사자에게 형성된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자원봉사활동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와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우선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기타 연구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문헌연구조사를 통하여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자본의 형성과 기능 및 사회자본의 측정 그리고, 자원봉사의 개념과 기능 및 중.고령층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보았으며,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 등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전술한 문헌연구조사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자원봉사활동의 대표적 특성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성북구,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4개구를 중심으로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및 노인복지관등에서 55세 이상의 중고령 자원봉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처리를 통하여 분석되었는 바, 편집과정(coding)을 거쳐 컴퓨터에 입력하고,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Program(ver.12)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또한 t-검증(t-test)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진행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및 구성을 밝히고, 이어 제2장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 구성요소와 사회자본의 형성과 기능 및 사회자본의 측정, 자원봉사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중. 고령자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사회자본과의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정리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 및 표집, 조

사도구 및 측정,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연구설계를 기술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 고령층의 사회자본형성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중. 고령층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중고령 자원봉사자들에게 축적된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모색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회자본이론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에 대한 높은 관심의 원인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이론으로 급부상(유석춘·장미혜, 2003: 18)한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본(capital)은 고전적 경제학에서 토지, 노동과 함께 생산요소의 하나로 “건물·기계·시설 등 고정설비와 완제품 등 물리적 형태의 자원”을 말한다. 이러한 물리적 형태의 자본을 물적 자본 또는 경제자본으로 부른다. 1960년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신고전과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들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노동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회자본은 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위해 집합 행동을 촉진시키는 규범과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는 개괄적인 용어이다. (남궁근, 2007: 299)

사회자본 이론은 1916년 L.J.Hanifan에 의해서 처음 등장하였다. Hanifan은 사회자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자산으로 사회적 단위를 구성하는 개인들이나 가족들 간의 선의, 동료의식, 동정 그리고 사회적 교제 등을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김종미, 2004; 임우석 2009: 8 재인용). 그 이후 자본의 기본의 개념은 공동체 보다는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어 인간 및 사회관계를 규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Bourdieu와 Passeron, Loury 등에 의해서 초기 연구가 시작되었고, Coleman, Burt, Putnam, Portes등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 되었다(임우석, 2009: 9).

이러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중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연구가들인 Bourdieu, Coleman, Putnam에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1> Bourdieu의 사회자본이론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상호인식 속에서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현존하는 또는 잠재되어 있는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네트워크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유석춘, 장미혜, 2003: 19).

또한 Bourdieu는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소유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획득하게 되는 자원이라고 보았고(홍현미라, 2005: 13-14), 특정한 행위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Bourdieu는 한 사람이 소유한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자본과 같은 여러 형태의 자본은 서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축적된 인간의 노동으로 정의되는 경제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Feldman & Assaf, 1999; 김종미, 2004; 박규범 2010: 6 재인용).

Bourdieu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서, 서로 알고 있음이나 상호인정이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소유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획득하게 되는 자원이며(홍현미라, 2005: 13-14),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에 따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Bourdieu의 사회적 자본은 도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유석춘, 장미혜, 2003:

17). 도구적 관점의 연구는 개인이 신뢰나 네트워크, 집단규범 등을 통하여 주위의 자원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놓고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측정, 해석하게 되는 바, 사회적 자본을 개인수준의 도구주의적 의미로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 Lin(2001)을 들 수 있다(이영현 외, 2006; 임우석 2009: 11 재인용).

Bourdieu의 사회자본의 개념은 집단 참여에 의한 개인들의 이익과 그러한 자원의 창출을 목적으로 연대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김종미, 2004: 17).

그리고 Bourdieu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의 관계망의 산물임을 알 수 있는 바, Burt, Portes, Loury 등은 이러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즉, Burt(1992)는 사회적 자본을 다른 형태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는 친구, 동료,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망이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기업 내부 및 기업 간의 관계도 사회자본이며, 이런 의미에서 사회자본을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최종 중재인으로 간주하였다. Portes(1995) 또한 사회자본은 관계망 또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희소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아 Burt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였다. Loury(1992)는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되 자연발생적 사회관계를 강조하여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하였다(홍현미라, 2005; 임우석 2009: 11 재인용).

2> Coleman의 사회자본이론

사회자본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Coleman(Coleman, 1988; 1990)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미국 사회학계에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진영을 이끌었던 Coleman은 처음으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목적을 위해 이 개념이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했다(Baron et al., 2000; 임우석, 2009, : 11 재인용)

Coleman은 사회자본을 행위자들이 가용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자원이라고 보았다. Coleman은 사회자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회자본은 그것의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것은 특정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 다양한 실체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에서 생기며, 둘째로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그것 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운 특정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자본은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같이 완벽하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특정한 행위에 특화되어 나타난다. 특정한 사회자본은 특정한 행위를 유발하는 가치를 지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용하거나 혹은 해로울 수도 있다(Coleman, 1988; 임우석, 2009: 12 재인용)

이렇게 볼 때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정의한다.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그 생산적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의 특징으로 사회자본이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며, 이 자원은 사회구조로부터 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용학, 2004). 의자라는 개념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의 무한하게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지칭하듯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특정한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구조로부터 오는 다양한 형태의 실체를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다(Coleman, 1988; 임우석, 2009: 11 재인용). Coleman은 사회구조로부터 오는 다양한 실체, 즉 사회자본의 주된 형태를 의무, 기대, 신뢰, 규범, 제재,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회자본의 기능으로 신뢰에 기초한 거래비용의 감소, 구성원들 사이에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게 하는 기능, 규범과 제재를 통한 공공재의 확산 기능을 들었다. (이상일, 2007; 임우석 2009:11 재인용).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은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자본은 이러한 구조 안에 있는 개개인들에 의한 특정한 행동(certain action)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다. Coleman은 네트워크 안에 참여함으로써 나오는 자원은 정보의 습득, 상호 신뢰의 시스템에서 비롯한 호혜성의 규범, 또는 협동적인 사회적 규범을 포함할 수 있다

(Herrerros, 2004; 박규범, 2011: 6 재인용).

그리고 Coleman이 개념화한 사회자본의 속성은 사회관계의 내재성, 사회적 생산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기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속성은 사회자본을 규명하는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Coleman의 시각이 기능주의적이라는 점과 Coleman의 이론이 사회체계이론에 기반을 두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는 비판도 있다(Fram, 2003, 홍현미라, 2005; 박규범, 2011: 6 재인용).

Bourdieu와 Coleman의 연구와 같이 개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확보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나 범위, 혹은 연결망내의 위치에 따른 중심성이나 배타성, 자율성 등에 의해 결정 된다. (유석춘, 장미혜, 2003: 20). 따라서 미시적 연구에서는 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원동원 측면에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 거시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의 전통이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한 가치나 관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거시적인 연구는 주어진 문화나 조직의 차원에서 파악된 사회의 특성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유석춘, 장미혜, 2003: 21).

3> Putnam의 사회자본이론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사회과학분야에서 대중화시킨 것은 Putnam이다. 그는 주로 Coleman으로부터 빌려온 사회자본 개념을 토크빌의 자치규범에 관한 논의와 연결시킨 후, 이를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의 경과에 대입시켰고(Putnam, 1993a), 이 연구는 이후 사회적 자본개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상준, 2004: 80). Putnam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신뢰, 규

범,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하였다(Putnam, 1993a). 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네트워크가 구성원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호혜성의 배양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네트워크는 의사소통,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집단행위를 통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연구(Putnam, 1995a, 2000)에서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투표참여자 수, 교회신자 수, 노동조합 가입자 수, 자원봉사단체회원 수를 조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미국 사회내 사회적 자본이 1960년대 이후 매우 급속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비교적 높은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고 있는 주나 공동체는 훨씬 안전하고 생산적인 이웃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고, 탈세행위가 적으며, 집단간 포용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Putnam은 사회관계 및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된 관계망으로,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은 수평적 관계라고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즉, Coleman은 사회적 자본에 수평적 단체 뿐 아니라 수직적 단체까지 포함하는 반면,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간의 수평적 단체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Coleman이나 Bourdieu가 사회자본을 개인적인 특성으로 본 반면 Putnam은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발전시켰다.(홍현미라, 2005: 14)

Putnam은 사회적 자본 개념을 공적, 정치적 영역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했다. 그 결과 Bourdieu와 Coleman의 사회자본론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던 비영리적, 공공적 측면이 Putnam의 이론틀에서는 어느 정도 포착된다(김상준, 2004: 81). 또한 수평적 조직에 대한 참여와 신뢰 및 상호부조의 일반화된 규범 등과 같이 사회자본을 이루는데 핵심적 요소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관계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 자본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조작화하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켰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Stolle, 2000; Bryson & Mowbray, 2005; 홍현미라, 2005: 14 재인용).

그러나 Putnam의 연구는 미국사회의 결사체의 변화, 즉 미국사회에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시민활동 및 시민참여의 유형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규환, 남상우, 2008; 임우석, 2009: 14 재인용).

거시적 차원에서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한 형태로서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정의하며, 사회자본은 인적자본, 물적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면서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투자이익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정기환 외, 2006; 김영옥 2011: 26 재인용)

사회자본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들인 Bourdieu, Coleman, Putnam의 관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기 차이를 지닌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주요학자들의 사회자본의 정의>

연구자	사회자본 정의
Bourdieu	사회자본은 상호인식 속에서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현존하는 또는 잠재되어 있는 자원의 총합
Coleman	사회자본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요소 내의 다양한 관계로서 사회구조의 일련의 측면을 구성하며, 구조 내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는 것이다.
Putnam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자료: 박희봉(2009: 36)<표-1>를 수정하여 재구성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이나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이들의 개념들 속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왔다. 사회자본의 개념 속에는 첫째,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고 둘째, 개인과 사회의 공식 비공식적인 모든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셋째 사회의 규범과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넷째, 사회발전과 퇴보에 영향을 주며 다섯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축적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박희봉, 2005) 그래서 OECD(2000)에서는 이 같은 사회자본의 특성에 입각해 사회자본을 집단내 혹은 집단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가치, 이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홍영란, 2007: 45-47)

그러나 OECD와 같이 규범,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등을 단순히 사회자본의 개념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들은 어디까지나 구성요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종 개념의 일부나 전체로서 개념을 대신해서 등장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이들 구성요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과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태룡, 안희정, 2011: 53)

예컨대, 사회자본 개념의 대중화에 기여한 Putnam(1995)은 사회자본이란 상호이득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 하면서, 이와 같은 구성요소를 강조한 바 있다. Nahapiet & Ghoshal(1998)도 사회자본을 설명할 때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김태룡, 안희정, 2011: 53)

그러나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network), 신뢰(trust), 상호 호혜성(norms of reciprocity)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표2-2>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	분석단위	네트 워크	자원	신뢰, 호혜성	기타
Coleman	개인, 집단, 지역사회	o	x	o	o
Putnam	지역사회	o	x	o	o
Paxton	(주로)지역사회	o	x	o	-
Krishna	지역사회	o	x	o	o
Uphoff	지역사회	o	x	o	o
Woolcock	지역사회	o	x	Δ	x
Bourdieu	개인,집단	o	o	o	x
Line	개인	o	o	x	x
Portes	개인,(소)집단	o	o	x	o
Schiff	개인	o	Δ	x	o
Burt	개인	o	o 직위에 따라	x	x
Glanville	개인	o	x	o	x
김정란	개인	o	x	o	x
박희봉	조직	o	x	o	x
이희장 외	지역사회	o	x	o	참여
한상미	개인	o	x	o	x

주: ○은 연구내용에 포함된 경우, X는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Δ는 불명확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Glanville(2001);한은영(2008); 박세경 외, 2008: 38 재인용

가. 네트워크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네트워크이며, 이는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규범과 정보의 흐름은 네트워크가 기능

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구혜정, 2002; 홍성모, 2010: 24 재인용).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뢰구조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반을 밝혀준다. 신뢰구조가 사회자본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도 ‘신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이다.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유형화할 수 있고, 이는 특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그 속에 내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한상미, 2007; 홍성모, 2010: 24 재인용)

Putnam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을 확고하게 증진시키며,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른 개인들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과거의 성공을 협력으로 구체화하며, 미래의 협력을 위한 문화적 틀로서 기여한다고 보았다. Putnam은 네트워크를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가교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였으며, 결속형 네트워크는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회자본 형태이고 가교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자본 형태로 보았다. 즉, 가교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단정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을 비교할 수 있는 ‘다소간의 정도’의 차원들이라고 보았다.(박세경 외, 2008: 39-40)

올콕을 비롯한 최근의 몇몇 연구자들(Szteter and Woolcock, 2004; Kawachi et al., 2004; Loeffler, Christiansen, Tracy, Secret, Ersing, Fairchild & Sutphen, 2004; Healy, 2003; Hermoso, 2005; 한상미, 2007에서 재인용)은 한 두 가지 구분 외에 연계형(linkage)을 덧붙인다. 가교형 네트워크가 비교적 비슷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연계형 네트워크는 명백하고 공식적인 또는 제도화된 권위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있는 관계의 규범이나 네트워크이다.(박세경 외, 2008: 40)

네트워크는 또한 사회자본의 축적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Coleman(1998)은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의 규범과 신용

이 증가하므로 사회자본 축적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르테스(1998)는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고 폐쇄적일수록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가정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urt(1992, 1997) 역시 내부적 연결이 강한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정보 획득에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약한 연대와 강한 연대 모두 사회자본 축적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보다 유리한 네트워크를 판단하는 데는 기준 설정의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게 된다.(박세경 외, 2008: 40)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안성호 & 광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16 재인용).

나. 신뢰

신뢰는 사회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기도 하며, 사회자본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뢰는 사람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 감시,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안우환, 2005; 박세경 외, 2008: 41 재인용), 사회자본의 전형적인 예로서 사회적 안정과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박찬웅, 1999, 한상미 2007; 홍성모, 2010: 26 재인용).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거나 혹은 폐쇄된 네트워크에서는 신뢰에 의존하거나 신뢰를 증진시키는 호혜적인 관계도 더 돈독해진다. 그러나 신뢰 그 자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속성일 뿐, 그것 자체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맺는 신뢰관계 대상의 양 뿐만 아니라 중첩성이나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한상미, 2007; 홍성모, 2010: 26 재인용).

Coleman(1988)에 의하면 신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와 상호부조는

구체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Foley & Edwards, 1999, Jackman & Miller, 1998). 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상호부조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호부조(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라고 명명되며, 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공유된 가치나 행동에 대한 기초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와 상호부조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규칙의 공정성과 공식적 절차, 쟁점의 해결이나 자원배분 등에 의해 형성되는 신뢰와 상호부조를 말한다(Stone & Hughes, 2002, Rothstein & Stolle, 2001; 안성호 & 박현근, 2004; 박세경 외, 2008: 40 재 인용).

Putnam(1993)은 초기에 신뢰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탈락시킨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신뢰가 사회생활의 마찰을 제거하는 윤활유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신뢰는 호혜성의 규범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자본의 다른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정의 내렸다.(박세경 외, 2008: 41) 후쿠야마(1996)에 의하면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한다. 그는 경제학적 입장에서, 한 나라의 경쟁력과 삶의 수준은 사회의 고유한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신뢰를 담는 그릇이 사회자본이라고 보았다.(홍성모, 2010: 27)

다. 호혜성

사회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는 상호호혜성을 들 수 있다. Coleman은 상호호혜성이라는 용어 대신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Coleman에게 있어 상호부조의 규범은 상호부조의 ‘호혜적 성격’과 ‘규범’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홍현미라, 2005: 18).

Coleman(1988)에 따르면 이러한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막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하며, 사회적 지원, 지위, 명예, 그리고 다른 보

상에 의해 강화되어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자본이 된다. 또한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을 자제하고 가족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는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내고, 보살핌과 헌신으로 뭉친 작은 집단을 통해 사회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키워낸다.(홍성모, 2010: 27)

즉, 자기 억제적 행동에 대한 외적 보상을 통해 지원을 받고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집합적 생활에 존재하는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Coleman, 1988; 박세경 외, 2008: 42 재인용).

Bourdieu(1986)는 “관계의 네트워크는 전략 등의 투자의 산물인데, 이는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견딜만한 의무감(감사, 존경, 우정의 태도 등)을 암시한다”고 하면서 호혜성은 사회자본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Putnam(1993)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에 대해 언급하며,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은 시민참여의 연결망에 의해 확고하게 증진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반적 호혜성에 의존하는 사회는 불신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인데, 이는 현금이 물물교환보다 더 효율적인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홍성모, 2010: 27-28)

호혜성은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돌아오며, 어쩌면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러한 일반적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 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으로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호혜성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관계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돌아오는 상황을 말한다. 즉,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말한다(장충권, 2005, 한상미 2007; 박세경 외, 2008: 43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호혜성은 신뢰와 관련되며, 신뢰 없이는 일반화된 호혜성이 나타날 수 없다. 또한 호혜성은 신뢰를 증가시켜주고, 호혜성의 실패는 신뢰를 감소시키게 만든다.(홍성모, 2010: 28)

라.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자본은 대체적으로 네트워크, 신뢰, 상호 호혜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구성요소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으로, 신뢰와 호혜성은 인지적 측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박세경 외, 2008: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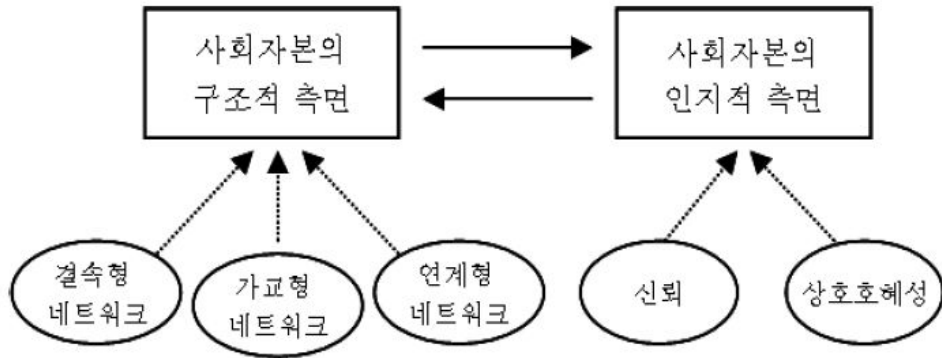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귀납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자본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평면적 일상 관계 속에서 특정 목적의식이 보다 강하게 개입되고, 보다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 그 관계가 일정 유형을 띄게 될 때 비로소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다. 신뢰와 호혜성 역시 사회자본을 인식하는 귀납적 도구로서, 가치, 신뢰, 호혜성은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가 되며, 실체가 없는 이러한 개념들은 네트워크에 의해 귀납적으로 설명된다(한상미, 2007; 홍성모, 2010: 29 재인용).

네트워크는 실체가 있으며, 이 실체가 작동함으로써 사회자본이 발생한다. 만일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사회자본은 형성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담는 그릇이며, 신뢰와 호혜성은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원리가 된다(박숙미, 2002; 홍성모, 2010: 29 재인용).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구성원들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네트워크로 표현되며, 신뢰에 기반한 호혜주의 규범에 의해 형성되고(Emerson, 1981), 이러한 호혜주의 규범은 협력행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Putnam, 1993; Fukuyama, 2005; Tyler & Kramer, 1996, 장용호, 2005; 박세경 외, 2008: 44 재인용). 신뢰는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와 관계되며, 밀도 있는 네트워크는 신뢰를 증진시킨다.(Lin, 2001; 박세경 외, 2008: 44 재인용).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인 신뢰와 호혜성과 구조적 측면인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의 [그림2-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2-1]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의 관계



자료: 한상미(2007) 박세경 외, 2008: 44 재인용

3. 사회자본의 형성과 기능

가. 사회자본의 형성

사회자본은 관계에 존재하며, 관계는 교환을 통해 형성된다. Bourdieu (1986)는 사회자본 생성에 있어 ‘관계’와 ‘변환’을 중시하였으며, 그는 사회자본 형성의 필수요소로 관계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에서 말하는 관계는 실천적인 상태에서만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물질적, 상징적 교환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가족이나 학교, 계급, 정당 등과 같은 제도적 행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보증된다. 이런 경우 그 관계들은 교환 속에서 실제로 성립되어 있고 또한 유지되고 강화된다. 물질적, 상징적 교환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재인식 하도록 요구하며 유지시키는 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은 물리적(지리적) 공간이나 경제적, 사회적 공간 속에서 객관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사

실로 환원될 수 없다(Bourdieu, 1986; 박세경 외, 2008: 45 재인용)

이렇듯 관계형성을 통한 연계의 유형이 사회자본의 토대가 된다. 교환을 통해 형성·유지되는 사회자본은 결국 교환을 촉진하는 순환과정을 만들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서로 신뢰하게 되면 보다 기꺼이 상호협력 하고자 하고, 이는 다시 신뢰를 증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같은 사회자본의 요소들은 조직 내 구성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해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박희봉, 2002: 26).

사회자본 형성에서의 관계는 변환의 과정(transforming)을 거친다. 변환 과정이란 변형적 교환 또는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교환이란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교환이론의 의미와 다르며, 사회자본은 사용기간 외에도 오랫동안 성립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자본 형성에는 불가피하게 사교에 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Bourdieu, 1986; 박세경 외, 2008: 45 재인용)

또한 사회자본은 반복적인 PD(Prisoner's Dilemma: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일회적인 PD게임에서는 배반이 두 행위자 모두에게 지배적인 행동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는 협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이 게임이 반복된다면, tit-for-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협력에는 협력,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 전략이 지배적이게 되어 두 행위자 사이에 협력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김남선·김은영, 2003; 박세경 외, 2008: 46 재인용).

종교 및 공통의 역사적 경험도 비공식적 사회규범과 사회자본을 낳는 요인이 된다. 사회자본은 종교나 전통, 공통된 역사적 경험 등의 부산물로 정부의 통제밖에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직접적으로 사회 자본을 창출하기 위한 영역으로 교육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가르침으로써 사회자본을 전수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화(재산권 보호, 치안유지 등)를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 사람들 간의 신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김남선·김은영, 2003; 박세경 외, 2008: 46 재인용).

사회자본 형성요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Stone과 & hughes, Stolle은 사회자본 형성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에 따라 구성하였다(안성호, 광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21 재인용).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건강, 교육수준, 고용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제시하였으며, 가족특성으로 가족관계 내 지위, 결혼상태, 자녀유무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특성으로는 도농의 구분, 사회경제적 수준, 관계망 형성 비율, 지역사회 관련 지식, 지역사회 리더십, 지역사회의 치안 및 안전 등을 제시하였고, 제도특성으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자발적 결사체, 법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인들 중, 개인 특성에서는 고소득, 고학력, 주택소유, 남성, 중년이상의 연령 등이 사회자본과 정적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Newton, 2001, 박희봉·김명환, 2000; 홍현미라, 2005: 21 재인용), 가족특성 변수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 연구들이 보고되지 않았다. 단, Stolle & Newton(2001)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족경험에 기초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신뢰와 상호부조 규범 및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가족적 특성변수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특성변수 중에서는 지역의 안전의식이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Stone & Hughes, 2002, 안성호·광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21 재인용), 제도특성변수들의 경우 사회자본과의 인과 관계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안성호·광현근(2004)은 여러 연구들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적 특성변수들에 대한 사회자본 영향요인을 예측하고 있다(홍현미라, 2005: 21).

한편,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 조직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직급을 제외하고는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체 참여 및 활동에 있어서는 사회 단체참여 및 활동은 조직 내 사회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원봉사 참여는 신뢰에, 사내 단체 참여는 신뢰와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단체활동의 장려가 조직의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업무환경이 사회자본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박희봉, 2002: 13).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선진 주요국가의 전략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Saguaro Seminar(Putnam이 책임을 맡고 있는)에서 2001년이래로 (인종과 민족 중심의)다양성 및 이주(immigration)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성 및 사회자본과 불평등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성과 이주가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며 필수적이게 되었다. 또한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강하게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다양성이 공동체의 연대를 파괴 시키거나 재설계해야 하는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이주민이나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라는 보다 큰 공동체의식을 창조하고 이를 함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시민 교육(civic education)은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요소나 가치의 공유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박세경 외, 2008: 47-48)

또한 Putnam은 새로운 사회자본 형성과 성공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그 중 하나가 미국의 모든 사회자본의 절반가량을 설명하는 종교에 관해 서였다. 그는 왜 미국의 대형교회들이 사회자본 형성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낮은 진입장벽과 수천 개의 작은 그룹의 벌집구조를 통해 높은 공동체 의식과 규약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 낮은 진입장벽과 벌집구조의 연계는 다른 많은 조직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박세경 외, 2008: 48)

아일랜드의 경우, 2003년 국가경제사회포럼(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NESF)의 사회자본의 정책적 함의(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자본의 보편화를 위해 도시/지방의 개발 및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 등을 통해 모든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조정, 통합을 증진한다. 둘째, 능동적 시민의식 및 지역사회개발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쓴다. 특히 국가차원의 봉사활동 센터 설립, 지역 거점 정

보통신 및 대중매체에 대한 공공지원, 지역차원의 새로운 정치-학습 혁명 실험등과 같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작업환경의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기업과 지역거점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직장생활에 대한 융통성을 보장한다. 또한 보육,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대한 평등성 수준 측정 및 직장, 출퇴근, 육아, 교육, 봉사활동 등에 투자하는 시간을 국가차원에서 조사한다. 넷째, 생애학습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쓴다. 특히 이를 위해서 가정-학교-지역의 연계 및 지역거점의 학습네트워크 지원체제 개발, 지역사회와 기업 및 교육기관의 연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들고 있다. 다섯째,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을 마련한다. 여섯째, 능동적 시민의식,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학습 및 공간전략 등에 대한 전략적 구상 및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개발을 제안한다.(박세경 외, 2008: 48-49)

싱가포르의 경우, 신경제와 정보사회의 도전들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사회자본이 정부와 시민사회를 묶어주고 동원할 수 있는 중요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싱가포르는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관계를 보다 긴밀히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다리 놓기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와 시민사이 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규범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공공의 협의를 얻은 공동의제수립(joint agenda-setting)과 협의과정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계선 파괴로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제시와 의사결정을 위한 여지를 넓히기 위해 정치적 경계선을 재규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장벽 허물기로서, 시민운동가들의 대표활동과 정부기관의 정책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위적인 관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사회자본의 자원들을 동원하고 개발하여 관료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를 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홍영란, 2006).

이와 같이 사회자본은 그 주요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 등이 결합하고 선순환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사회자본을 형성시키고 발전

시킨다. 또한 이 같은 사회자본의 형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조직 차원,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와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고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전략이 논의·실행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근원 및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다. 사회자본의 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들은 사회자본을 적용시켜서 연구할 수 있는 특정 종속 변수의 범위를 넘어서며, 예상되는 결과의 의미나 특성은 더욱 다양하다(Portes, 1998; 박세경 외, 2008: 50 재인용).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사회자본의 기능은 크게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나. 사회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자본의 첫 번째 순기능은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높은 신뢰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서면 계약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없는 만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법적 문서나 근거 없이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전제로 채권과 채무가 형성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도가 높으면, 의무감을 상호 공유하게 되고 사회자본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높은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장기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공식적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대안적 수단을 찾아내기 용이하다(홍영란, 2006; 박세경 외, 2008: 50 재인용).

둘째, 높은 사회자본은 정보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킨다. 일반적으로 정보 획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잠재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를 얻는데 소요하는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킨다. 특정 분야나 이슈에 대한 전문가를 알고 있는 경우, 필요할 때 전문가의 견해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추적하고 축적할 때 생기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가들이 정보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 운영비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올리는 예를 비롯하여, 사회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일수록 조직에서의 승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 등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Burt, 1997, 박세경 외, 2008: 51 재인용).

셋째, 사회자본은 규범 혹은 사회 통제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긴밀한 공동체 연결망에 의해 창출된 사회자본은 가족, 교사, 경찰이 자신들의 책임 아래 기율을 유지하고 복종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이 같은 사회자본의 원천은 보통 제한적 연대나 강제할 수 있는 신뢰이며, 이는 공식적이고 지나친 통제를 필요하지 않게 만든다(Portes, 1998). 또한 규범이 효과적으로 기회주의를 제재할 수 있게 되면, 감시·감독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투자와 경제적 거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은 시민적 도덕감을 증대시켜 유권자로 하여금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집합행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홍영란, 2006: 박세경 외, 2008: 51 재인용).

넷째, 사회자본은 조직 및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책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정책수행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된다. 또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수익률이 높아진다. 조직 내 사회적 자본이 형성, 축적되면 구성원들의 활동이 원활해짐으로써 조직의 역동성이 증가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증진된다. 또한 신뢰문화가 체화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며, 더욱 효과적인 생산 단위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유, 상호 학습에 유용한 지역학습조직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은 개인학습을 하는 조직보다 훨씬 유연하고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자본은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구직에도 도움을 주며, 신뢰에 기반하여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이 많이 축적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OECD, 2001, 홍영란, 2006: 박세경 외, 2008: 52 재인용).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강조하

고 있는 반면, 부정적 효과나 기능에 대해 언급한 문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자본의 역기능 혹은 부정적 결과의 초래 위험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연구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자본의 역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홍영란, 2006: 박세경 외, 2008: 51 재인용)

첫째, 사회자본은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외부인에 대해서는 접근을 차단하여 배제시킨다(Waldinger, 1995).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사회자본에 의해 효율성 증가 등의 혜택을 얻는다면,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내부인/외부인의 구분을 통한 강력한 집단결속은 타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협력과 신뢰를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적 결속행위는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발전에 장벽이 되고 갈등을 유발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둘째, 강력한 결속력과 공동체의 폐쇄성은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과잉요구(overdemand)'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의 성공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기어츠(Geertz)는 발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일 자리와 대출을 찾아다니는 친척들에 의해 어떻게 곤란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호부조를 장려하는 강력한 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Geertz, 1963). 그러한 결과, 전도유망한 기업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강력한 연대속성을 지닌 공동체는 나태한 구성원들의 성공한 구성원들에 의존하는 '무임승차문제'를 갖게 되고, 이는 기업가적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공동체나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규범에 따라야하는 순응(confirmity)을 요구한다. 작은 동네나 마을에서는 모든 이웃들이 서로 서로 알고 있으므로 동네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신용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은 사회통제의 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게 된다. 브와스베인(Boissevain, 1974)은 말타섬 마을의 생활을 연구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

자를 구속하는 친밀하고 ‘중첩된’ 연결망은 공동체의 삶과 고유의 규범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감소시킨다(Portes, 1998).

넷째, 사회적 자본의 생성은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나, 투자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비용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사회자본의 정보 이익에 관하여 한센(Hansen, 1998)은 다른 집단과 너무 많은 직접적 연계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연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함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가 정보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연계의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이 낮아진다. 또한 때로는 사회자본의 정보이익이 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Adler & Kwon, 2000).

4. 사회자본의 측정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효과에 관한 논의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은 그 속성에 있어서 다양성, 가변성, 다차원성 등에 기인한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실제적 의미나 적용 등에 관해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특히 개념적 중요성과 측정 가능성 간의 딜레마로 인해 측정상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은 표면화되지 않는 속성을 지녔으므로 측정상의 어려움이 많고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홍영란, 200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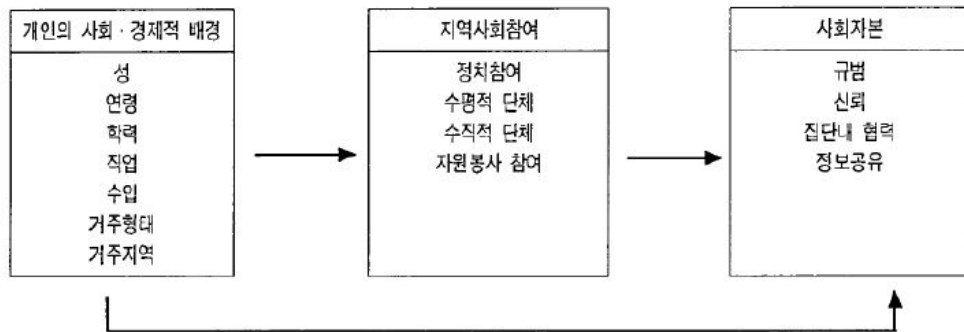
홍영란(2007)은 사회자본 측정과 관련된 연구논문에서, 국내 연구 및 미국, 영국, 캐나다, OECD, World Bank에서 수행된 사회자본 측정과 관련된 연구물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자본 측정 지표를 구성하였다(홍영란, 2007: 7).

1) 국내연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증적 측정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본질을 이해하

는 만큼이나 어렵다. 특히, 본질과 개념요소를 혼동할 경우 어떤 특정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접근시각에 따라 판이한 측정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박희봉과 김명환(2000)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변수와 지역사회 참여변수 간의 관계를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사회의 건전성을 결정할 사회적 하부구조로서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유재원(2000)은 일부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사체 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철호(2001)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자본형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면서 실증적 조사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증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박희봉(2001)은 조직성과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조직 내 업무환경과 지방정부 효과성간에 인과관계에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조직 내의 업무환경이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이 업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이정규(2003)는 경제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업탐색의 효과 및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박희봉과 김명환(2001)은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포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규범과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 공유의 정도와 주민의 정치참여, 지원행사 참여, 수평적 단체 참여, 수직적 단체 참여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틀은 [그림 2-2]와 같으며, 지역사회참여 및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하위 지표들은 <표 2-3>와 같다.

[그림 2-2] 박희봉·김명환(2001)의 사회자본 분석틀



자료: 박희봉 · 김명환(2001)

<표 2-3 > 박희봉 · 김명환(2001)의 지역사회참여 및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념	구성요소	지표
사회자본	규범	지역주민의 준법정도/ 법에 대한 인식/ 도덕확립 정도에 대한 인식/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체의 협력 정도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 및 자선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내 갈등에 대한 자체적 해결 정도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친척 및 친구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단체에 대한 신뢰
	집단내 협력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다양한 집단의 의사 존중/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주도
	정보공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정보제공 처 확보/ 사회단체의 정보제공 역할/ 언론의 지역문제 해결 역할
지역사회참여	정치참여	정치 모임 혹은 집회 참여/ 사회문제에 관련 대화 참여/ 청원서 제출/ 정당 가입 및 활동/ 대통령 선거 참여/ 국회의원 선거 참여/ 지방선거 참여/ 시민단체 가입
	수평적 단체	체육회 가입단체 수/ 가입한 시민단체 수/ 가입한 학술단체 수
	수직적 단체	가입 종교단체 수/ 가입한 종친회 수/ 가입한 동창회 수/ 가입한 친목회 수/ 가입한 종친회 수
	자원봉사 참여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시, 월 평균 자원봉사 시간

자료: 박희봉 · 김명환(2001)의 설문 내용을 재구성함(박세경 2008)

소진광(2003)은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과 개념요소를 연계하고 이를 존재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표현인자를 설문조사하여 성남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시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로 신뢰, 참여, 연계망(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그리고 이타주의를 예시하고, 특정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환경과 역사성 및 주민구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표 2-4> 소진광(2003)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념요소	표현인자
신뢰기반	공공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직업상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
	주변 개인관계에 대한 신뢰
	가족 간의 신뢰
	지역사회 안전 체감도
네트워크	지역사회 참여단체 수(봉사단체, 종교단체, 이익단체, 클럽, 계모임, 친 목단체, 향우회 등)
	이웃의 범위(the size of neighbourhood)
	지역사회 리더십
	도움이 필요시 지원체계 구비 정도
사회적 규범	지역사회 규범 인지정도
	청소년 선도
	범죄율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율
	자신의 규범 준수에 대한 태도
참여기회	지역행사 참여횟수
	투표 참여율
	피선거권 행사의향(시의원, 도의원, 시장 등)
	시, 구, 동 자문 혹은 공익단체 자문 참여 횟수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봉사단체에 대한 기부정도
	주변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
	사후 재산처분에 대한 태도

자료: 소진광 외(2006), 정기환 외(2006)에서 재인용

이미정(2002)은 공공부문 IT 아웃소싱 관계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IT 아웃소싱에서 (조직) 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연 관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사례(한국의 철도청 사례, 영국의 국세청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공공부문에서 IT 아웃소싱상의 관계문제에 대해 조직간 관계에 한정되었던 기존 시각을 조직 내 관계영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과의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써 정서적 측면의 아웃소싱 관계문제를 표면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기환 외(2006)는 마을과 같이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와 그 속에 중첩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의 사회자본 측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해당하는 4~6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6개 농촌 마을의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개념의 구성요소와 이를 측정하는 지표는 <표 2-5>과 같으며, 지표구성요소별로 사회자본 측정이 가능하도록 각각 2개 이상의 질문 문항을 설정하였다.

<표 2-5> 정기환 외(2006)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본질적 개념	하위개념	
사회적 교환과 보상	- 사회적 지위 향상 - 애경사 때 상부상조 - 자원예의 접근성	- 동료간 신뢰 증진 - 기회예의 접근성 - 규범준수 의무
협동	- 노동 교환 - 공동 기금 조성 참여 - 공동 행사 참여	- 애경사 때 지원 - 회의 참석 정도 - 단체 지지
경쟁	- 품질 경쟁 - 지도력 경쟁	- 생산 경쟁 - 지위향상 경쟁

갈등	- 집단 내 정치적 이해 갈등 - 집단 간 정치적 이해 갈등 - 집단 내 경제적 이해 갈등 - 집단 간 경제적 이해 갈등
----	--

자료: 정기환 외(2006)

안성호 외(2004)는 사회참여, 신뢰 및 상호부조 등 세 영역별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전의 동네수준 사회적 자본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결과 사회참여정도는 단독주택 거주 마을에서,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자가 많은 동네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뢰정도는 단독 주택지나 혹은 상가주택지에서 높게 나타났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동네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상호부조정도 역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동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평적 접촉이 일상을 지배하는 동네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태준 외(2003)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시민의식 범주 및 구성요소로서 도출하고 이러한 가설적인 구인들이 실제 생활 장면에서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시민의식 육성에 관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홍영란(2007)은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영역 및 수준 설정 등을 통해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연구자는 사회자본을 개인과 집단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구조(제도),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자본을 3개의 영역과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21개 내용 요소를 설정하였다. 사회자본의 3개 영역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신뢰 및 관용성 영역,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이며, 이를 미시적 수준(개인·가정·이웃 등), 중간 수준(학교·지역사회 등), 거시적 수준(국가·국제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자본 측정 요소를 영역별, 수준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표 2-6>은 연구자가 개발한 사회자본 측정 모형을 나타낸다.

<표 2-6> 홍영란(2007)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영역 수준 별	미시적 수준/ 요소 (개인, 가정, 이웃 등)	중간 수준/ 요소 (학교, 지역사회 등)	거시적 수준/ 요소 (국가, 국제사회 등)
1.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개인의 참여 및 시민의식	학교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국가 수준의 참여 및 시민의식
	가정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국제사회 수준의 참여 및 시민의식
	이웃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2. 신뢰 및 관용성	친구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학교에 대한 신뢰와 관용성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가족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관용성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이웃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3.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개인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학교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국가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가정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이웃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자료: 홍영란(2007)

2) 해외연구동향

미국의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를 통하여 사회자본측정. SCCBS의 사회적 자본 측정 구조에 있어서 11개의 구성요인의 내용을 보면, 우선 신뢰 중에서 사회적 신뢰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신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타인에 대하여 신뢰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주로 응답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표 2-7> SCCBS 사회적 자본 구성 요인 및 설문 내용

차원	구성요인	설문내용(예)
----	------	---------

신뢰	사회적 신뢰	이웃, 직장동료, 가게점원, 동료종교인, 지역경찰, 타인에 대한 신뢰
	인종간 신뢰	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에 대한 신뢰
친구관계의 다양성	친구관계의 다양성	개인적 친구의 다양성(사장, 생활보호대상자, 동향, 동성애자, 직장동료, 동일종교신자,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지역사회리더등의 11개항목)
정치 참여	보수적 정치참여	지난주 신문정치면 읽은 총일수 선거명부 등재여부 최근 대통령 선거 참여 여부 정치에 대한 흥미 표현 정치 관련 사건에 대한 지식 정도
	진보적 정치참여	데모, 행진집회등의 집회참여 노동관련단체 및 인종관련 단체가입
시민 리더십 및 유관기관 참여	시민 리더십	공식 집단 참여수 1년간 클럽 활동 참여 수 1년간 학교 및 지역문제 공청회 참여 수
	유관기관참여	종교집단, 스포츠클럽, 각종리그, 젊은이 조직, 주민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가집단, 사회복지단체, 자치단체, 예술단체, 민족성이 나타나는 단체, 시민권 관련단체, 취미단체, 투자관련단체, 인터넷단체등에 대한 참여
비공식적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유대	1년간 카드 및 보드 게임 참여 수 자기집/친구집에서 친구 초대, 방문 수 친척 방문 수
기부 및 자원봉사	기부 및 자원봉사	종교적 이유로 기부 여부 건강 및 질병 관련 봉사 여부
신앙 활동 참여	신앙활동 참여	종교 기관 가입 여부 종교 기관 정기 집회 참여 여부 교회의 행사 참여여부
시민참여의 평등	시민참여의 평등	지역별 시민참여 정도 차이(평등적 시민참여의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8가지 유형의 시민 참여의 인종, 소득, 교육에 따른 차이 분석)

출처:SCCBS(2007),

<<http://www.ksg.harvard.edu/saguaro/communitysurvey/results5html>>.

외국의 사회자본 측정 연구는 World Bank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World Bank의 Bain 외(2002), Grootaert(2001), The World Bank(2002), Grootaert 외(2004), Ibanez 외(2002), Chase & Holmemo(2005), Wetterberg(2004), Knack(2000)의 연구보고서들에서 제시된 사회

자본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관계성,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집합체가 공유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집합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힘이라는 정의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World Bank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또는 국가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정의와 역할 등을 탐색한 보고서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자본 측정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2-8>와 같다.

<표 2-8> World Bank 연구물의 사회적 자본 측정 구조

출처	사회적 자본의 측정 구조
Bain 외 (2002)	공식조직에의 참여 즉각적인 집단적 행동 형성에의 참여 위기시기의 집단적 행동 평상시 집단적 행동 신뢰와 포용
Grootaert (2001)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의 수 3개의 중요 집단의 내부 다양성 여부(8가지 기준으로 평가) 지난 3달 간 참석한 모임수 3개의 중요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도 3개의 중요 집단에 회원이 되기 위해 지불한 회비 3개의 중요 집단에 회원으로서 기여한 날짜 수 회원 가입한 집단 중 지역사회 주도인 집단의 비율
The World Bank(2002)	지역수준에서 상호신뢰의 변화정도 공공서비스와 지역수준 기관에 대한 시민평가 시민과 지역수준 기관 간의 관계 지역수준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집합적 행동의 형성 공식적으로 자발적 집단에의 참여
Grootaert 외 (2004)	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유대 집합적 행동과 협동 정보와 의사소통 사회적 결속과 포용 권한 위임과 정치적 행동
Ibanez 외	조직의 참여(membership)

(2002)	집단적 행동에의 참여 신뢰
Chase &	지역사회 조직의 참여율
Holmemo (2005)	집합적 행동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뢰 거버넌스 참여(마을모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참여정도, 개발계획에 참여 정도 등)
Wetterberg (2004)	참여한 집단의 공식성 수준(Networks: 비공식적 연결, organization: 비교적 항구적인 소속감을 갖는 집단, 정부주도기관: 지역마다 공식적(또는 법적-자 발적일 필요가 없는)으로 소속되어 있는 관 주도 집단 중심) 외적 연결성 지수(이웃 외 멀리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소속된 집단 수)
Knack (2000)	상호믿음 건전한 시민태도와 협력을 나타내는 인구센서스 조사에 대한 응답 자발적 활동(volunteering activity)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자료: 홍영란 외(2007)

사회적 자본 측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사회적 자본의 특성상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 측정보다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측정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이므로 영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동향 분석을 위하여 국가통계청이 2001년 이후 추진해 온 사회적 자본 측정 프로젝트를 활용하였다 (홍영란, 2007: 24)

사회적 자본 측정 구조에 대한 보다 세밀한 설명은 아래의 <표 2-9>와 같다(Harper & Kelly, 2003). 5개의 영역에서 사회적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들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모두 포괄하여 측정하는 문항으로써 행동을 측정하는 객관적 문항과 태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5가지 하위영역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 차원으로 구분된다. 즉, 사회적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은 개인 수준의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호혜(성) 및 신뢰, 시민 참여, 지역

사회에 대한 견해의 차원은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community) 수준의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9 > 영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구조

차원	지표 예
사회적 참여	소속된 문화적, 여가, 사회적 그룹의 수 및 관여 빈도 및 세기 관여의 자진 지원, 빈도 및 세기 종교 활동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인척/친구/이웃을 만나고 대화하는 빈도 가상 네트워크 정도 및 접촉 빈도 가까이 사는 친한 친구/인척 수 도움 교환 인지된 절제 및 삶에 대한 만족
호혜 및 신뢰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당신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여러 다른 수준에 있는 제도에 대한 확신 부탁을 하거나 받음 공유된 가치에 대한 이해(지각)
시민참여	이벤트에 영향을 주는 능력에 대한 인식 지역/국가 사건에 대해 얼마나 잘 정보를 얻는가? 공공 고위 관료 혹은 정치 대표들과의 접촉 지역 활동 그룹과의 관계 투표 경향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물질적 환경에 대한 견해 지역 시설 지역에서 살아가는 즐거움 범죄에 대한 공포

실질적인 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제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이를 정책에 연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에서 우수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의 공공정책연구소(Policy Research Initiative:

PRI)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본 측정 구조 및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표 2-10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사회적 자본의 요소		개인적 차원 개인 네트워크	집합적 차원	
			조직 단체내 네트워크	조직 단체내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네트워크의 규모	개인이 유지하고 있는 상이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	조직내의 구성 원수	파트너 단체의 수
	네트워크의 밀도	구성원들 간의 상호 유대성 수준	조직내 구성원들의 상호 유대성 수준	파트너간의 상호 유대성 수준
	네트워크의 다양성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이질성	조직내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이질성	파트너십 주체들의 이질성
	접촉빈도	구성원들의 접촉빈도와 접촉 시간	조직내 구성원들의 접촉빈도와 시간	조직 간의 소통빈도와 공동행위 빈도
	접촉강도	구성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강도	조직내 업무수행 관계에서 구성원간의 협력강도	파트너십 주체들이 갖는 관계의 긴밀함
	공간적근접성	정기적인 면대면 접촉 구성원 유무	정기적인 면대면 모임을 갖는 구성원 유무	파트너십의 대응주체가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정도
네트워크의 작동성	자원 접근 조건	대안의 존재여부, 의존성정도, 지원 획득가능성 등	조직구성원의 자율성과 상호의존성	파트너십 주체의 자율성과 상호의존성
	존재자원과 사용되는 자원의 규모 차이	기대되는 활용가능한 자원/지원, 실제로 활용한 자원/지원	기대되는 활용가능한 자원/지원, 실제로 활용한 자원/지원	기대되는 활용가능한 자원/지원, 실제로 활용한 자원/지원
	대인관계 역량과 사회통합 조건	대인관계 기술과 일상생활에의 영향	조직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구성원들의 상호관계성의 안정성	조직간의 협력적 프로젝트 수행의 안정성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의 관계	상호작용의 민주적	상호작용의 민주적

	규범과 규칙	가 갖는 문화적, 윤리적속성	속성과 질, 개방성, 행위자 존중감, 구성원들의 조직현신에 대한 신뢰수준	속성과 질, 개방성, 행위자 존중감, 파트너 조직발전에 대한 기여수준
네트워크 외적 조건	기관,개인의 구성양식	사회적 관계성을 강화/저해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관련구조	조직 구성원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련 구조	파트너십 활동과정에서 조직간 공식적, 비공식적 관련 구조

제 2 절 자원봉사의 개념

1. 자원봉사의 개념과 기능

1)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란 영어로 ‘Voluntarism’, ‘Volunteer activity’인데 이는 라틴어의 ‘Voluntas’(자유의지)에서 나온 말로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인류사회의 협조를 향한 인간개인의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자발적으로 군대에 지원하는 지원병, 자원병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률적으로 무상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김미숙외, 1993; 김영옥 2009; 10 재인용).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은 진정 행복한 존재로서 인간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실천이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즐거운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환경을 자발적·자주적으로 만들어가는 개개인들의 협동적·체계적 노력인 것이다(이성록,2000; 김영옥, 2009: 10 재인용)

미국의 사회사업사전(Encyclopædia of Social Work)에서는 자원봉사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사의 여러 조직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자원봉사는 욕구가 인식되어졌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태도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혜나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초월하는 의미라고 덧붙이고 있다.

영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신이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적인 보상 없이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무보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오사카자원봉사협회에서는 자진해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보수성보다 자발성을 강조하였다(이영철, 2003; 김영옥, 2009: 1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8)는 자원봉사를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낮은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선을 고양 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발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영옥, 2009: 11)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대체로 공익성(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무보수성(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자발성(강제 없이 자신의 자유의지로)과 지속성(혹은 체계성 : 지속성으로 활동을)을 특성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성용, 2006, 김영호, 2003, 류기형, 1999, 조휘일, 1995).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 나타나는 자원봉사의 특성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이타성, 사회복지성, 무보수성, 자아실현성, 지속성(개척성), 학습성, 헌신성, 협동성, 전문성 등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김태룡, 안희정, 2009: 4)

김태룡, 안희정(2011: 96-106)은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권병옥, 2008, 임현선, 2003, 이강현, 2002, 이영남, 2002, 조휘일, 2001, 이인수, 2001)

(1) 자발성

자발성이란 타인의 명령이나 구속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여 자기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활동에 있어 자발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주체성에 의해 활동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활동의 참여를 권유받을 수는 있지만, 참여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권력이나 외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활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간혹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는 봉사라는 같은 개념아래에서 비슷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이강현, 2002), 자발성이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봉사와 자원봉사는 명확히 구분된다.

여기서 자발성의 기준은 기본적 의무감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투표,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일은 기본적 의무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조휘일, 2002). 그러나 서구에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친척을 돕는 일까지 비공식 자원봉사에 포함시키기도 하여 그 인식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이강현, 2004). 따라서 자발성 문제는 활동의 참여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가를 자발성의 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이타성(공익성, 사회복지성)

이타성에서 이타(利他)란 다른 이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가 얻은 공덕과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공익성이나 사회복지성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자발적이고 보수 없이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내의 개인 혹은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회사나 동창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자원봉사로 할 수 없다(김한구 외, 1997). 즉, 아무리 자원봉사의 개념이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봉사의 성격이 이타성이나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때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이인수, 2001).

(3) 자기만족감(자아실현성)

자기만족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자원봉사에서 봉사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동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 성취감, 폭넓은 인간관계 등의 심리적 보상(김범수 외, 2003)과 자원봉사자가 일정한 기간 공식적인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학습되기도 하고, 또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경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할 수도 있는 학습성 모두 큰 의미에서 자아실현이며, 이러한 학습을 통한 경험,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축적은 자기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전공과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4) 무보수성

자원봉사에서 자발성만큼이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무보수성(무급성)이다. 자원봉사에 있어 무보수성이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활동의 목적이 경제적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김범수 외, 2004). 여기서 무보수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준비의 기회를 경험하고 정신적

인 이익을 실현하고자 참여한 경우, 비록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아실현과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의 보상을 받는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등의 인간관계를 넓힐 수도 있는 것 등의 심리적 보상은 금전적 무보수성을 대체하는 자원봉사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과 관련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수현, 2005).

(5) 지속성(개척성)

지속성(개척성)은 행동의 일회성이나 일시적 충동적 활동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즉흥적이거나 일시적 행사로서가 아니라 계획된 일련의 과정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속성은 과거의 단순한 주민참여나 이웃에 대한 온정주의와 자원봉사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특성이다.

지속성은 자원봉사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등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동기와 만족도 또는 지속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최근에는 참여동기 보다는 지속동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오효근 외, 2008; 구혜영, 2006; 류기형 외, 2005; 이용필 외, 2003; Gidron; 1985). 이는 자원봉사가 일회성이나 충동적으로 끝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혼란만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활동이 시작되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오효근 외, 2008)

2) 자원봉사의 기능

자원봉사는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 자

원봉사의 가치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자원봉사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원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총생산의 잠재력 제고와 고용창출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의 기능과 역할을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룡, 안희정, 2009: 6)

(1) 개인적 차원

자원봉사는 각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서 자각하고 스스로 타인에게 또는 타인과 더불어 봉사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격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현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자아발전과 성숙의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자원봉사는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적이며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러한 일상생활은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보람과 가치를 느끼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수요를 창출하게 되며 이들 영역에 대한 학습 욕구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일과 사물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고 지적인 활동과 교육적 자극을 받아 지식과 기술의 확장 기능이 있다.

(2) 사회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첫째,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기능을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순수한 인간관계는 스스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응집된 결과는 자신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둘째, 공동체의식과 참여의식 제고하는데 긍정적 기능을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구성원들로 함께 행동한다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공동체 의식’ 혹은 ‘연대의식’에 근거한 적극적 시민참여로 연계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 및 환경 개선의 기능을 한다. 삶의 조건은 더할 나위 없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데 자원봉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인간관계가 형식화되고 연대감과 상부상조의 공동체가 상실된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탈락된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에 복귀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에 자원봉사의 사회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3) 국가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첫째, 행정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사회적 차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적 차원의 자원봉사가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정부의 힘이나 의지는 예산부족이나, 인원부족, 뒤늦은 문제발견 등 구조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자원봉사가 정부의 역할을 동반하고, 독려함으로서 정부의 몫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경제적 기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예산을 통한 정부활동에 맡기지 않고, 자원봉사를 통해 추진함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민사회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원리인 자율적 규제를 능동적 방향으로 관

철시키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자원봉사와 사회자본을 연계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Rubenso, 2000; 김태룡, 안희정, 2009 : 7 재인용)

2. 중·고령자의 정의

Simonede Beauvoir(1969)는 노년을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인이나 사회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능력 혹은 두 가지의 균형 가운데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연령층의 분류도 달라질 것이라 하였다(2002, 홍상희 외; 백선희, 2011: 6 재인용)

중·고령자 취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누구를 중·고령자로 정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책과 행정적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흐름을 반영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의 용어와 학술연구에서의 용어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용어에 혼란을 빚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의 취지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백선희, 2011: 6)

중·고령자의 정의에 앞서 먼저, 노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국제노년학회(1951)와 Breen(1960)이 제시한 정의다. 국제노년학회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의 기능과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 인체의 기관 및 조직의 기능, 생활상의 적응능력,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하거나 혹은 결손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Breen은 심리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노인을 정의하는데 있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물학적 변화(감퇴)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백선희, 2011: 7)

한국의 법률은 노인복지법과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

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법에서는 고령자촉진지원금 규정에 의해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로 구분함으로써 연령대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도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65세 이상)’로 구분하고 있는데, 55세에서 64세의 집단은 기준고용률을 적용하거나 정년기준 연령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고령자를 준고령자(장년층)와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적게는 30세부터 중장년층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50세부터 중·고령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백선희, 2011: 7) <표 2-11 참조>.

<표 2-11 중고령자의 정의>

구분	연구자	대상
연구	김학주, 우경숙(2004)	중년(45-54세), 고령(55-64세)
	김미혜, 최혜지(2004)	준고령(55세이상)
	성지미, 안주엽(2004)	중장년층(30-49세) 중고령층(50-74세)
	엄동옥(2008)	중고령층(50-74세)
	한국노동연구원(2008a)	중고령(50세이상)
	이성용, 방하남(2009)	50세이상
법률	고용보험법	준고령(50-54세), 고령(55세 이상)
	고령자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법	준고령(50-55세), 고령(65세 이상)

자료: 백선희(2011)

지금까지 살펴본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연령이나 생물학적인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리적 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기퇴직의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고령층을 55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의 하였다.

제 3 절 선행연구

1.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실제로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더해 사회 자본과 자원봉사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어느 것이 선행변수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자본과 자원봉사가 지닌 특성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중 명확하게 어느 것을 선행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김태룡, 안희정, 2011: 132)

다만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의 축적이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양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자본의 축적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선행변수로 설정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김태룡, 안희정, 2011: 133)

첫째, 자원봉사가 사회자본을 보다 공고히 하는 수단 즉, 선행변수로 자원봉사를 제시한 경우이다. 김태홍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사회자본의 축적 과정에 포함시켜, 사회자본으로서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Knack(2002)는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자원봉사(volunteering)를 포함시켜, 사회자본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최종덕(2007)도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자원봉사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선미(2008)의 연구에서도 임직원의 자원봉사가 개인 간의 면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험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신뢰를 향상시켜 사회자본의 축적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 자원봉사 조직으로 성장한 AmeriCorps를 결성한 것 역시 네트워크적 해결 방식인 호혜성(reciprocity)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느슨한 연계(loose coupling)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발적인 협동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김의영, 2003, 안병진, 2005) 유사한 맥락에서 Putnam(2000)도 자원봉사를 시민참여의 한 지수(index)로 사용하였다.

둘째, 이와는 달리 사회자본이 자원봉사의 활동을 공고히 하는 선행변수로 제시된 경우인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자원봉사간의 관계를 모색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김태룡, 안희정, 2011) 우선 자원봉사와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김동원(2005) 김범수(2006) 이명석 외(2008) 서주영(2001) 이성록(2003) 김영호(2003)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의 주된 흐름은 네트워크 또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이 있는데, 네트워크가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예컨대, 사회자본의 요소 중 특히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친구나 친지등 주변인물을 통한 긍정적 경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김태룡, 안희정, 2011: 134) 다시 말해 자원봉사를 하는 친구나 이웃 등과의 상호관계와 주변인들의 지지가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친구나 친지 등 가까운 인물들을 통한 간접 경험만으로도 자원봉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나 사교단체등 사회활동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록, 2002; 김태룡, 안희정, 2011: 134 재인용)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금룡(2003)의 연구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김선미 외(2002)의 연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연숙(2008)의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대상과 상관없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권유나 교류 등이 자원봉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예컨대 이금룡(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권유가 주로 동창회나 향우회, 계모임과 같은 사교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은 참여를 권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권유를 받아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우도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홍연숙(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나 친구, 지인 등 근접한 소규모 네트워크가 자원봉사의 참여나 지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변 인물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상호관계에 있는 타인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선미 외(2002)의 연구에서도 주부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족의 호응도나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참여 경험등과 같은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과, 자원봉사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일정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대안 역시 네트워크가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병식, 2001; 김태룡, 안희정, 2011: 136 재인용)

이외에도 이명석 외(2008)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안면도 사고이후 재난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보듯이, 물리적 방재능력의 확보나 대응매뉴얼의 준수등과 같은 물리적 조건보다는 신속한 민간 네트워크의 활용이 더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복구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자원봉사의 확대

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자원봉사의 확대에 네트워크나 신뢰,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Lammer(1991)는 ‘위기의 전화’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기간을 예측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자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참여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와의 관계가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의 이유와도 관계된 것으로, 새로운 관계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결과는 네트워크가 자원봉사에 선행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남선.김만희, 2002; 김태룡,안희정, 2011: 136 재인용)

유사한 맥락에서 홍은진(2006)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는 종교 유무,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기부 참여 경험 등과 같은 변수들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이외에도 미혼의 경우보다는 결혼을 한 기혼인 경우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 범위의 네트워크인 가족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형성이 자원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성록, 2002; 김태룡,안희정, 2011: 137 재인용)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자원봉사가 사회자본의 형성을 공고히 하는 선행변수로서의 관계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자원봉사자의 친지, 친구등 주변인들과의 네트워크의 틀을 공고히 하고,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켜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자본형성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다. 둘째로,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서의 관계이다. 즉, 기존 자원봉사자들

이 구축한 사회자본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이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여러 중요 요인중 무형의 요인이 사회자본이라는 기존 연구경향을 토대로 하여, 중고령층이 그간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사회자본인 네트워크와 신뢰 및 호혜성의 정도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 기간 및 참여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찾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연구 목적에 따라, 사회자본을 선행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 연구토록 하겠다.



제 3 장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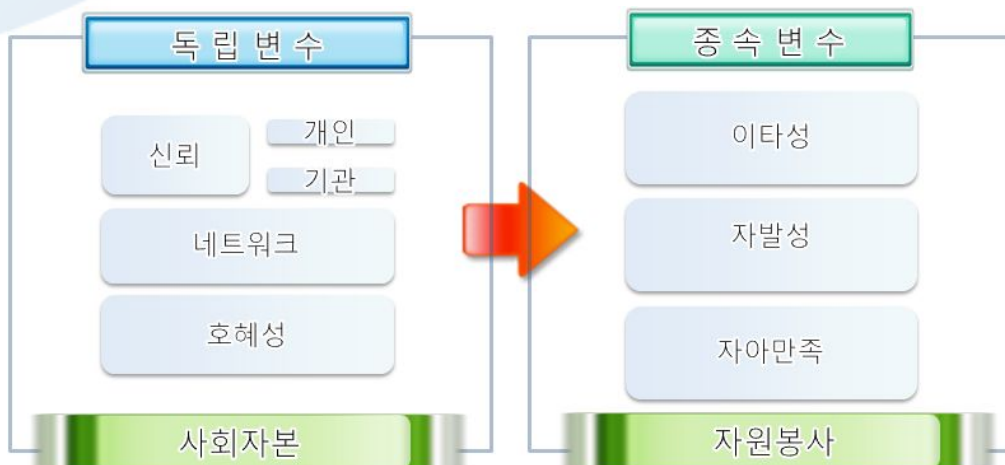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고령 자원봉사자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독립변수로 설정된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은 선행연구인 김태룡(2011)의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3가지를 독립변수로 한정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변수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념적 특성으로 활용빈도가 높은 변인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의 특성 중 타인에 대한 이타성과 자발성 그리고 봉사자 자신에 대한 자아만족성(자아실현성) 만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이로써,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념적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선행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상기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요인을 도출한 후, 본 논문이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설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인 자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인 이타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인 자아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설문의 신뢰도 및 설문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선행연구(김태룡, 안희정 2009: 10)의 설문문항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형식은 자기보고식 조사 형식으로 구성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5문항), 자원봉사활동 및 특성(18문항), 사회자본측정(15문항)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및 소득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자본과 자원봉사의 측정요인 및 측정지표는 <표 3-1>과 같다.

<표 3-1> 측정요인 및 측정지표

변인	측정요인	측정지표(설문내용)		
독립변수	사회자본	신뢰	개인신뢰	① 사람에 대한 신뢰성 ② 타인에 대한 공정성
			기관신뢰	① 학교에 대한 신뢰도 ②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 ③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④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
		네트워크		① 이웃과의 친밀성 ②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 ③ 지역사회에 대한 협조성 ④ 지역단체로부터의 지원정도
		호혜성		① 이견에 대한 수용성 ②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
종속변수	자원봉사	이타성		① 타인에 대한 봉사의사 ② 봉사에 대한 인식 ③ 분배에 대한 인식
		자발성		① 자원봉사 자발성 ② 참여여부결정의 자기주도성 ③ 자원봉사활동의 주도성
		자아만족성 (자아실현성)		① 기술과 지식 전달에 대한 만족도 ② 가치에 대한 만족도 ③ 학습에 대한 만족도

제 3 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중 55세이상의 중고령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서울시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중심구로서 성북구,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각 구별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종합사회복지관등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5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성북구 81부, 강동구 49부, 강서구 30부, 강남구 40부 총 200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제 4 절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ver 12.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과 자원봉사 참여실태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수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적 요인별 자기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조사도구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으며, 문항간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뢰도가 검증된 선행 연구들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표 4-1>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구 분		Cronbach's Alpha
사회자본	개인신뢰	.673
	기관신뢰	.667
	네트워크	.725
	호혜성	.688
자원봉사활동	자발성	.609
	이타성	.614
	자기만족	.648

제 2 절 통계분석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표 4-2>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4	32.0
	여자	136	68.0
연령	55-60세	124	62.0
	61-65세	20	10.0
	66-70세	28	14.0
	71-75세	18	9.0
	75세 이상	10	5.0
직업	회사원	35	17.5
	주부	105	52.5
	자영업	1	.5
	공무원	1	.5
	전문직	13	6.5
	무직	30	15.0
	기타	15	7.5
학력	중졸 이하	31	15.5
	고졸	129	64.5
	대졸 이상	40	20.0
월소득	100만원 미만	106	53.0
	100-200만원 미만	32	16.0
	200-300만원 미만	31	15.5
	300-400만원 미만	19	9.5
	400만원 이상	12	6.0
합계		200	100.0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자가 68.0%, 남자가 32.0%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55-60세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6-70세, 61-65세, 71-75세, 75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주부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원, 무직, 기타, 전문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 중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고, 월소득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자원봉사 참여 실태에 대한 분석

<표 4-3> 자원봉사 참여실태에 대한 분석

구 분		빈도	퍼센트
봉사 단체 수	1개	26	13.0
	2개	48	24.0
	3개	67	33.5
	4개	32	16.0
	5개	18	9.0
	6개 이상	9	4.5
봉사 참여시간	10시간 이하	21	10.5
	11-20시간	15	7.5
	21-30시간	58	29.0
	31-40시간	44	22.0
	41시간 이상	62	31.0
봉사 참여 기간	2년 미만	26	13.0
	2-4년 미만	30	15.0
	4-6년 미만	75	37.5
	6-8년 미만	53	26.5
	8년 이상	16	8.0
현 봉사 단체 분야	복지분야	69	34.5
	환경보호	18	9.0
	범죄예방	13	6.5
	문화분야	49	24.5
	상담활동	21	10.5
	교육분야	6	3.0
	재난구호	17	8.5
	교통분야	2	1.0
	기타	5	2.5
참여 동기	이웃 도움	73	36.5
	단체 일환	27	13.5
	대인관계	20	10.0
	여가	54	27.0
	지식/기술 활용	4	2.0
	주위 권유	17	8.5
	기타	5	2.5
참여 방법	요청	53	26.5
	가족/친구	27	13.5
	도움받는 가족/친구	22	11.0
	조직/학교/직장	53	26.5
	광고	7	3.5
	자원봉사센터	30	15.0
	스스로	4	2.0
	기타	4	2.0
합계		200	100.0

자원봉사 참여 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봉사 단체 수에서는 3개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개, 4개, 1개, 5개, 6개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 참여시간에서는 41시간 이상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1-30시간, 31-40시간, 10시간 이하, 11-20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 참여 기간에서는 4-6년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8년, 2-4년, 2년 미만, 8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봉사 단체 분야에서는 복지분야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분야, 환경보호, 재난구호, 범죄예방, 교육분야, 기타, 교통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에서는 이웃 도움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단체 일환, 대인관계, 주위 권유, 기타, 지식/기술 활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방법에서는 요청과 조직/학교/직장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센터, 가족/친구, 도움받는 가족/친구, 광고, 스스로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표 4-4>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사회자본	개인신뢰	200	3.43	.53
	기관신뢰	200	3.49	.45
	네트워크	200	3.57	.59
	호혜성	200	3.41	.64
자원봉사활동	자발성	200	3.75	.44
	이타성	200	3.74	.42
	자기만족	200	3.73	.39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사회자본에서는 네트워크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기관신뢰, 개인신뢰, 호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자발성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타성, 자기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표 4-5> 봉사시간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개인신뢰	10시간 이하	21	3.19	.84	2.645* .035
	11-20시간	15	3.16	.58	
	21-30시간	58	3.44	.46	
	31-40시간	44	3.53	.36	
	41시간 이상	62	3.46	.49	
	합계	200	3.42	.52	
기관신뢰	10시간 이하	21	3.15	.60	9.668*** .000
	11-20시간	15	3.11	.48	
	21-30시간	58	3.52	.36	
	31-40시간	44	3.71	.28	
	41시간 이상	62	3.52	.45	
	합계	200	3.49	.45	
네트워크	10시간 이하	21	3.03	.68	5.345*** .000
	11-20시간	15	3.55	.77	
	21-30시간	58	3.60	.43	
	31-40시간	44	3.66	.38	
	41시간 이상	62	3.64	.65	
	합계	200	3.56	.58	
호혜성	10시간 이하	21	2.88	.78	4.362** .002
	11-20시간	15	3.51	.57	
	21-30시간	58	3.40	.51	
	31-40시간	44	3.51	.38	
	41시간 이상	62	3.48	.77	
	합계	200	3.40	.63	
자발성	10시간 이하	21	3.88	.39	4.395** .002
	11-20시간	15	3.88	.41	
	21-30시간	58	3.61	.32	
	31-40시간	44	3.63	.37	
	41시간 이상	62	3.86	.53	
	합계	200	3.74	.43	
이타성	10시간 이하	21	3.79	.41	1.940 .105
	11-20시간	15	3.71	.45	
	21-30시간	58	3.62	.38	
	31-40시간	44	3.72	.43	
	41시간 이상	62	3.83	.43	
	합계	200	3.73	.42	
자기만족	10시간 이하	21	3.62	.40	5.983*** .000
	11-20시간	15	3.73	.51	
	21-30시간	58	3.63	.28	
	31-40시간	44	3.64	.32	
	41시간 이상	62	3.92	.41	
	합계	200	3.73	.38	

* : p<.05, ** : p<.01, *** : p<.001

봉사시간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에서는 개인신뢰($F=2.645$, $p<0.05$), 기관신뢰($F=9.668$, $p<0.001$), 네트워크($F=5.345$, $p<0.001$), 호혜성($F=4.362$,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신뢰, 기관신뢰, 네트워크, 호혜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자발성($F=4.395$, $p<0.01$), 자기만족($F=5.983$,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발성은 21-30시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기만족과 자원봉사 만족도는 41시간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봉사기간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에서는 개인신뢰($F=7.370$, $p<0.001$), 기관신뢰($F=6.515$, $p<0.001$), 네트워크($F=4.577$, $p<0.01$), 호혜성($F=5.793$, $p<0.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보면, 2년 미만에서 개인신뢰, 기관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6> 봉사기간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개인신뢰	2년 미만	26	3.00	.63	7.370*** .000
	2-4년 미만	30	3.28	.50	
	4-6년 미만	75	3.49	.43	
	6-8년 미만	53	3.55	.45	
	8년 이상	16	3.62	.61	
	합계	200	3.42	.52	
기관신뢰	2년 미만	26	3.22	.51	6.515*** .000
	2-4년 미만	30	3.27	.49	
	4-6년 미만	75	3.60	.40	
	6-8년 미만	53	3.55	.35	
	8년 이상	16	3.64	.49	
	합계	200	3.49	.45	
네트워크	2년 미만	26	3.16	.76	4.577** .001
	2-4년 미만	30	3.48	.66	
	4-6년 미만	75	3.63	.52	
	6-8년 미만	53	3.68	.40	
	8년 이상	16	3.69	.65	
	합계	200	3.56	.58	
호혜성	2년 미만	26	2.92	.68	5.793*** .000
	2-4년 미만	30	3.54	.60	
	4-6년 미만	75	3.47	.63	
	6-8년 미만	53	3.53	.48	
	8년 이상	16	3.18	.75	
	합계	200	3.40	.63	
자발성	2년 미만	26	3.78	.36	.445 .776
	2-4년 미만	30	3.81	.50	
	4-6년 미만	75	3.75	.46	
	6-8년 미만	53	3.69	.28	
	8년 이상	16	3.68	.64	
	합계	200	3.74	.43	
이타성	2년 미만	26	3.70	.42	.453 .770
	2-4년 미만	30	3.77	.39	
	4-6년 미만	75	3.77	.42	
	6-8년 미만	53	3.68	.39	
	8년 이상	16	3.70	.56	
	합계	200	3.73	.42	
자기만족	2년 미만	26	3.75	.42	2.183 .072
	2-4년 미만	30	3.66	.38	
	4-6년 미만	75	3.74	.34	
	6-8년 미만	53	3.67	.39	
	8년 이상	16	3.97	.46	
	합계	200	3.73	.38	

* : p<.05, ** : p<.01, *** : p<.001

<표 4-7> 성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p
개인신뢰	남자	64	3.38	.45	-.779
	여자	136	3.44	.55	.437
기관신뢰	남자	64	3.48	.37	-.309
	여자	136	3.50	.48	.757
네트워크	남자	64	3.57	.49	.062
	여자	136	3.56	.62	.951
호혜성	남자	64	3.32	.59	-1.193
	여자	136	3.44	.65	.234
자발성	남자	64	3.70	.40	-.966
	여자	136	3.76	.45	.335
이타성	남자	64	3.71	.39	-.410
	여자	136	3.74	.43	.683
자기만족	남자	64	3.62	.31	-2.776**
	여자	136	3.78	.40	.006

** : $p < .01$

성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에서는 개인신뢰, 기관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자기만족 ($t = -2.776$,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자기만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8> 연령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개인신뢰	55-60세	124	3.41	.54	.379
	61-65세	20	3.35	.56	
	66-70세	28	3.48	.44	
	71-75세	18	3.52	.36	
	75세 이상	10	3.40	.73	
	합계	200	3.42	.52	.823
기관신뢰	55-60세	124	3.42	.47	2.384
	61-65세	20	3.57	.57	
	66-70세	28	3.58	.34	
	71-75세	18	3.65	.25	
	75세 이상	10	3.70	.38	
	합계	200	3.49	.45	.053
네트워크	55-60세	124	3.53	.61	1.845
	61-65세	20	3.40	.61	
	66-70세	28	3.81	.57	
	71-75세	18	3.57	.24	
	75세 이상	10	3.66	.53	
	합계	200	3.56	.58	.122
호혜성	55-60세	124	3.38	.65	.707
	61-65세	20	3.30	.64	
	66-70세	28	3.58	.53	
	71-75세	18	3.40	.55	
	75세 이상	10	3.40	.87	
	합계	200	3.40	.63	.588
자발성	55-60세	124	3.74	.44	2.258
	61-65세	20	3.63	.43	
	66-70세	28	3.79	.38	
	71-75세	18	3.61	.36	
	75세 이상	10	4.06	.43	
	합계	200	3.74	.43	.064
이타성	55-60세	124	3.72	.40	2.303
	61-65세	20	3.56	.46	
	66-70세	28	3.85	.43	
	71-75세	18	3.66	.36	
	75세 이상	10	3.96	.55	
	합계	200	3.73	.42	.060
자기만족	55-60세	124	3.74	.39	.695
	61-65세	20	3.66	.37	
	66-70세	28	3.80	.35	
	71-75세	18	3.63	.34	
	75세 이상	10	3.77	.53	
	합계	200	3.73	.38	.597

연령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에서는 개인신뢰, 기관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자발성, 이타성, 자기만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4-9> 학력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개인신뢰	중졸 이하	31	3.30	.67	1.094 .337
	고졸	129	3.43	.47	
	대졸 이상	40	3.48	.54	
	합계	200	3.42	.52	
기관신뢰	중졸 이하	31	3.48	.50	1.541 .217
	고졸	129	3.53	.42	
	대졸 이상	40	3.38	.48	
	합계	200	3.49	.45	
네트워크	중졸 이하	31	3.46	.67	.740 .478
	고졸	129	3.60	.55	
	대졸 이상	40	3.53	.61	
	합계	200	3.56	.58	
호혜성	중졸 이하	31	3.48	.87	.420 .658
	고졸	129	3.37	.58	
	대졸 이상	40	3.44	.58	
	합계	200	3.40	.63	
자발성	중졸 이하	31	3.91	.54	2.990 .053
	고졸	129	3.70	.40	
	대졸 이상	40	3.75	.44	
	합계	200	3.74	.43	
이타성	중졸 이하	31	3.78	.52	.457 .634
	고졸	129	3.71	.41	
	대졸 이상	40	3.76	.37	
	합계	200	3.73	.42	
자기만족	중졸 이하	31	3.79	.46	.711 .493
	고졸	129	3.73	.37	
	대졸 이상	40	3.68	.36	
	합계	200	3.73	.38	

학력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에서는 개인신뢰, 기관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자발성, 이타성, 자기만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4-10> 월수입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개인신뢰	100만원 미만	106	3.47	.51	1.182 .320
	100-200만원 미만	32	3.48	.43	
	200-300만원 미만	31	3.29	.57	
	300-400만원 미만	19	3.34	.52	
	400만원 이상	12	3.29	.65	
	합계	200	3.42	.52	
기관신뢰	100만원 미만	106	3.56	.37	3.242* .013
	100-200만원 미만	32	3.53	.34	
	200-300만원 미만	31	3.31	.48	
	300-400만원 미만	19	3.51	.66	
	400만원 이상	12	3.20	.68	
	합계	200	3.49	.45	
네트워크	100만원 미만	106	3.58	.43	.575 .681
	100-200만원 미만	32	3.42	.55	
	200-300만원 미만	31	3.59	.80	
	300-400만원 미만	19	3.60	.79	
	400만원 이상	12	3.63	.82	
	합계	200	3.56	.58	
호혜성	100만원 미만	106	3.45	.55	.966 .428
	100-200만원 미만	32	3.25	.58	
	200-300만원 미만	31	3.39	.83	
	300-400만원 미만	19	3.52	.68	
	400만원 이상	12	3.25	.80	
	합계	200	3.40	.63	
자발성	100만원 미만	106	3.75	.39	1.739 .143
	100-200만원 미만	32	3.58	.41	
	200-300만원 미만	31	3.84	.48	
	300-400만원 미만	19	3.82	.52	
	400만원 이상	12	3.72	.54	
	합계	200	3.74	.43	
이타성	100만원 미만	106	3.69	.36	.693 .598
	100-200만원 미만	32	3.76	.44	
	200-300만원 미만	31	3.81	.47	
	300-400만원 미만	19	3.80	.48	
	400만원 이상	12	3.72	.56	
	합계	200	3.73	.42	
자기만족	100만원 미만	106	3.66	.34	2.262 .064
	100-200만원 미만	32	3.71	.32	
	200-300만원 미만	31	3.85	.45	
	300-400만원 미만	19	3.86	.46	
	400만원 이상	12	3.82	.53	
	합계	200	3.73	.38	

* : $p < .05$

월수입별 사회자본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에서는 기관신뢰($F=3.242$,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보면, 100만원 미만에서 기관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에서 기관신뢰가 가장 낮게 나

타나고 있었다. 자기만족($F=2.262$, $p<0.06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자기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자기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다중회귀분석)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자발성, 이타성, 자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1>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자발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 Square	F, p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17	.252		.262	17.264*** .000	10.769	.000
개인신뢰	-.022	.057	-.027			-.392	.696
기관신뢰	-.112	.068	-.116			-1.651	.100
네트워크	.190	.059	.255			3.229**	.001
호혜성	.239	.053	.350			4.556***	.000

** : $p<.01$, *** : $p<.001$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의 자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262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6.2%로 나타났으며, $F=17.264$ 로서 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보면, 네트워크($t=3.229$, $p<0.01$), 호혜성($t=4.556$, $p<0.001$)이 자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인 네트워크와 호혜성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활동의 자발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원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중 하나는 자발성이다. 의무감이나 강제성이 아닌 자

발적인 의지에 의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을 때에 참된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요인인 네트워크와 호혜성이 자원봉사의 자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이는, 중고령층들이 은퇴전후 각종 사회활동으로 그 간 쌓아온 다양한 인적인 네트워크와 타인과 교류로서 획득한 상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서 한 호혜성을 배경으로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표 4-12>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 Square	F, p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05	.250		.229	14.445*** .000	9.629	.000
개인신뢰	.014	.056	.017			.252	.802
기관신뢰	-.005	.067	-.005			-.069	.945
네트워크	.218	.058	.302			3.740***	.000
호혜성	.153	.052	.231			2.940**	.004

** : $p < .01$, *** : $p < .001$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의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229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2.9%로 나타났으며, $F=14.445$ 로서 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보면, 네트워크($t=3.740$, $p<0.001$), 호혜성($t=2.940$, $p<0.01$)이 이타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인 네트워크와 호혜성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활동의 이타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서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은 중고령층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함양되어 있으며, 공동체내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호혜성으로 형성되어, 자원봉사의 이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표 4-13>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자기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 Square	F, p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22	.224		.264	17.514*** .000	12.175	.000
개인신뢰	.010	.050	.014			.199	.842
기관신뢰	-.109	.060	-.128			-1.828	.069
네트워크	.268	.052	.404			5.126***	.000
호혜성	.118	.047	.195			2.546*	.012

* : $p < .05$, *** : $p < .001$

사회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의 자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 Square값이 0.264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6.4%로 나타났으며, $F=17.514$ 로서 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보면, 네트워크($t=5.126$, $p<0.001$), 호혜성($t=2.546$, $p<0.05$)이 자기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인 네트워크와 호혜성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활동의 자기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는 중고령층이 각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인의 목표나 혹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많다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자기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

1.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검증

<표 4-14> 가설 검증

구 분	가설	검증결과	비고
가설 1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 1-1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인 자발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네트워크:p<0.01 호혜성:p<0.001	부분채택
가설 1-2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인 이타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p<0.001 호혜성:p<0.001	부분채택
가설 1-3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인 자기만족성(자아실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p<0.001 호혜성:p<0.05	부분채택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신뢰,네트워크,호혜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 보기위하여 상기 가설을 설정하여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종속변수인 자원봉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에서 선정한 하위 3개 가설은 모두 부분채택 되었다. 세부적으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중에서 네트워크 및 호혜성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인 자발성,이타성, 자기만족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개인신뢰,기관신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실시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중 네트워크와 호혜성 2가지 변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이타성 및 자아만족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네트워크요소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 및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 자원봉사활동 조직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화하고 구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중 신뢰(개인신뢰 및 기관신뢰)는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조사 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등의 사회문제들이 일시적으로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제 2 절 제 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고령층 자원봉사자들에게 형성된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의 무형의 근원적 동기로서 설명 가능하다는 관점 하에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사회자본의 축적 및 배양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고령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친지나 지역사회 이웃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평생 축적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한 전문분야별 중단기적 목표를 제시하는 다양한 전문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홍보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고령층 노인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사회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여 자아실현을 도움을 준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자원봉사가 체계화되고 조직화 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세대간 문화적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호혜성의 측면에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즉, 중고령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약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는 세대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를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회에 책임을 지는 세대로서의 사회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진행될 때에 사회구성원의 한축으로서 중고령층의 자연스러운 사회참여와 활발한 자원 봉사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셋째, 일시적 이긴 하나,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불신과 대립의 풍조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만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사회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중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자원봉사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자원봉사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민간 자원봉사기관이 연합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양질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고령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도 보다 풍요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창범, "초기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태도와 참여 의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권영숙,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상준,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6집 제6호(2004): 63-95.
- 김승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2004): 63-95.
- 김영옥,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 무료 급식소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태룡,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3호(2009): 27-51.
- _____, 안희정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서울: 집문당, 2011.
- 난 린, 『사회자본』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김동윤, 오소현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남궁근,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제13권 제4호(2007): 297-325.
- _____,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제13권 제4호(2007): 297-325.
- 류석춘, 장미혜, 전상인, 정병은, 최우영, 최종렬.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서울: 백산출판사, 2008.
- 박규범,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세경, 김형용, 강혜규, 박소현.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박은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희봉, 김명환.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한국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 _____, 이희창.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3호(2005): 709-728.
- 백선희, “중.고령자의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소진광,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6권 제1호(2004): 89-118.
- _____, 송태수, 임경수, 안혁근, 윤두섭.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개발』. 서울: 푸른솔, 2006.
- 송경재,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25호 (2004): 251-282.
- _____,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지방자치체 이후 지역별 변화와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3호(2006): 133-164.
- 오홍원,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공편역. 『사회자본:이론과 쟁점』.서울: 그린, 2003.
- 이현기,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45호(2009): 317-346.

- 임우석,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최영출,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04.
- 추교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2011.
- 홍성모, “사회자본의 지역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홍영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제34권 제4호(2007): 26-31.
- 홍현미라,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관점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황진수 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1.

2. 국외문헌

- Adler, P. S., and Kwon ,S., 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pp.89-115, In Eric L. Lesser,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oston: Burtworth Heinemann
- _____,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7 no. 1, pp.17-40.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D.(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NSW. Sydney: Centre for

- Australian Community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CACOM), University of Technology. MA : Harvard Press.
- Burt R. S.,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2 no.2, pp.339-365.
- Coleman, J.,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95-120.
- De Graaf D., 2003, "Social Capital", *Parks and Recreation*, vol. 38 no. 12.
- Fram, M. S., 2003, "Discussions of Social Capital: Social Work, Social Structure, and the Contextualization of Inequality", Ph.D. University of Washington.
- Feldman, T., and Assaf, S., 1999, *Social Capital: Conceptual Frameworks and Empirical Evidence*, The World Bank.
- Glanville, J. L., *Ties and Trust : Can We Rely on Voluntary Association to Produce Soci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Grootaert, C., Narayan, D., Jones, V.N. & Woolcock,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 1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Hendricks, and Hendricks, C, D, 1992, *"Aging in mass society: Myths and realities (4th ed.)"*, Harper collins.
- Hermoso, J. R., 2005, *The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aguario Seminar: Civic Engagement in America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 Luciani, Johnelle, 1992,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volunteer behavior*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anster, G., and Cass, R. H, 1971, *Voluntarism at the Crossroad*, New

-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 Nahapiet, J., and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 2, pp. 242–266.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22 no.2, pp. 201–214.
- Portes A.,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i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320–50.
- _____,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4, pp. 1–24.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vol. 4 no. 13, pp. 35–42.
- _____,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No. 1, pp. 65–78.
- Scuhller, T. W., 2000,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que",.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rageldin I., and Grootaert C.,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 Stolle, D., and Hooge, M., "Conflicting Approaches to the Study of Social Capital: Competing Explanations for Causes and Effects of Social Capital", *Ethical perspectives*, No. 1, pp. 22–45.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vol.27 no .2, pp. 151–208.
- _____, and Narayan, D.,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ABSTRACT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Voluntary Activities -Focused on the mid-aged old volunteers in Seoul-

Yoo, Jong Yong

Major in Welfare for the Aged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Recently, the importance of Voluntary Out-Reach Activities is being greatly emphasized compared to the past times. Due to the modernization of the society, individuals in different social levels are isolated and their relationship is being cut-off. And various social issues and problems are increasing which hinders the normal relationship of our society. And new social problems and issues keep appearing. There are limitations for our local government to act against these various kinds of social problems and issues thus the need for the voluntary involvement by individuals in our society is being emphasized.

Voluntary Out-Reach Activity in the past had a greater meaning of giving without any conditions in return based on humanism. But at present, Voluntary Out-Reach Activity is emphasized as a means and method of solving different kinds of social problems and issues.

In case of our country, the active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ged old individuals are an important factor in facing the problems in old-age problems and issu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or the effect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 of the middle aged old individuals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Voluntary Out-Reach Activities.

This research has set a assumption that the social capital affects the main aspects of Voluntary Out-Reach Activity, such as Spontaneity, Altruism and Self-Satisfaction.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social capital definitely affects the active involvement of Voluntary Out-Reach Activiti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has come up with the following insights.

Firstly, there is a need for placing an effort in building up various kinds of social network, such as family, friends, neighborhoods in order for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middle-aged old individuals in Voluntary Out-Reach Activities. Specially, there is a need for advertising within the society the different kinds of Professional Voluntary Out-Reach Activity Organization within the society who are composed of individuals with specialty on certain fields based on their experience. By being actively and voluntarily involved in this Voluntary Organizations. The middle aged old individuals will feel the sense of fulfillment,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which will help them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is Voluntary Activities.

Secondly, there is a need for the change of perception of the middle-aged old individuals from being weak and helpless, to being experienced and responsible professionals who takes up an important role as a member of our society. This will help motivate these middle-age old individua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Voluntary Activities.

Thirdly, there is a need for a solution to eliminate the mistrust, confront and opposition in our society. It means the social unification and building up trust between individuals, society and the local government by overcoming the age-gap, generation-gap and social level difference. By building up the this trust between the individuals and our society, we can upgrade the level of Voluntary Activ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capital as an advanced developed

country.

Lastly, it is a fact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ged old individuals in Voluntary Activities in our country is minimal compared to other advanced developed countries. We need to consider the different case studies of the advanced developed countries and modify the rules on the Voluntary Activities, and also the individuals and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operate to actively to encourage and develop a more meaningful and quality Voluntary Activity Programs. This active involvement would not only assist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but would also bring a more meaningful quality of life for the middle-age old individuals.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research has been based on the middle-aged old individuals living in the area of Seoul, unlike other previous researches which were based on all age groups. This research ha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overhead capital and its effect on the middle-aged old individuals involvement in the Voluntary Activities, and method of bringing active participation of the middle-aged old individuals to Voluntary Activities.

Key Words : Social Capital, Voluntary Activities